



“한 마리만 물어봐라”... 제주전통 낚시체험 25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전통 대나무낚시체험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선인들은 테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나무 낚시대를 이용해 고기를 잡곤 했다. 강화민기자

한라포커스 민선 7기 1주년 지역현안 점검 <3>지역경제

## 지역경제 ‘빨간불’... “체질 싹 바꿔야”

관광객 감소·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세 멈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역점 추진  
양적·질적 성장과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과제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성장률이 2017년부터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하향세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적·질적 성장 및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8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9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제주 경제 성장률이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 및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2017년 4.9%p)보다 낮은 성장세를 예측한 것이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 둔화는 도내 산

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둔화와 함께 건설업 부진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관련 서비스업이 다소 부진했으며, 미분양 주택 적체, 건축 착공면적 감소, 대규모 개발공사 지연 등은 건설업의 위축을 불러왔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당시 한은 제주본부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경제 성장 둔화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실제 한은 제주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4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올 1/4분기 제주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건설 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245호이며, 준공후 미분양은 774호(제주시 420호, 서귀포시 354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부진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1차산업을 비롯해 제조·건설업, 관광, 일자리 등 분야에서 단·중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교육·훈련, 고용을 연계하고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청년 취·창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과 사회기반시설 신속 투자로 건설산업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요산업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기본으로 돌아가 대내외 상황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80세 이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해녀어업 보존 등 조례 따라  
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8일 공포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규모와 기간은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이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2017년 6월 2일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다. 현재가

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는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양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등록증이나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661명(17%)이다.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2312명(59%)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 54%로 가장 높았고,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 의사는 86%로 조사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빅데이터로 이익·성장 ‘일거양득’

도·제주TP,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지원 본격  
제품 개발·마케팅 등 활용... 시장 개척 박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제주기업들의 보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영업이익 확대와 더불어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하 JTP)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영세한 제주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기업맞춤형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JTP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2019 빅데이터 BIZ 매칭데이’를 열어 도내 수요기업과 빅데이터 전문 컨설팅기업과의 1대 1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제주 대표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주)한라산, 두잉, (주)일해,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오는

10월까지 빅데이터 컨설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업의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적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당시 참여한 도내 23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다양한 사업성과를 거뒀다.

JTP는 데이터마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30개 내외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 구매와 가공비용을 바꾸쳐 형식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고용제 JTP 디지털융합센터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역량을 키워 제주 기업들이 스마트 시대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시장을 앞서 개척할 수 있게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훈기자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중금리·신차·중고차·자동차·대출·2019.05.29~2019.08.31

**제주은행**  
문의 : 1588-0079(7번)

응원은 우리끼! **제6회 만덕배 제주 전국여성 축구대회**

“서계를 가는 제주여성정신”

여성의 섬 제주에서 제6회 만덕배 제주 전국여성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대상 전국 시·도 축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팀  
일시 6월 29일(토) ~ 6월 30일(일), 2일간  
장소 월드컵경기장, 서귀포강창학구장

주최 제주신문 | 주관 서귀포시축구협회